

스리랑카의 생명농업

Life-giving Agriculture in Sri Lanka

랄리스 구나틸라카(Lalith Gunathilaka, 성공회 신부)

들어가는 말

스리랑카는 농업에 주로 의존하는 농업국가입니다. 차, 코코넛, 고무는 스리랑카의 주요 재배작물입니다. 고대로부터 농촌 마을은 계획된 관개수로를 사용하면서 생겨났습니다. 아주 초기부터 농사활동은 유기질비료를 사용하였습니다. 기술의 발전 및 개방경제와 더불어 여러 가지의 화학비료 및 농약과 함께 다수확 품종들이 도입되었습니다.

1813년에, 농업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농업부가(정부 내에) 창설되었습니다. 농업부는 농업연구소를 만들었으며, 전임 수상인 세나나야케(D.S.Senanayake)씨는 이 농업연구소를 개관하였습니다. 농업연구소는 새로운 품종들을 생산하였습니다. 이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C.I.C 등과 같은 많은 상업적 기관들도 다수확 종자들 및 화학비료의 생산과 빠르고 효율적인 농사기술 법을 도입하는 데에 관여하였습니다.

스리랑카는 불교,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 신자들이 공존하고 있는 다양한 종교 및 윤리국가입니다. 싱할리족, 타밀족, 무슬림, 부가 공동체들(Burgher communities)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공동체들은 대대로 내려오는 자기들만의 독특한 농사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증산을 위해 인공비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양과 자연에 매우 해롭습니다.

스리랑카의 농업과 관련된 주요 의제들/ 문제들

1) 건조지대(Dry Zone)

(1) 청년들이 농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2) 주된 요인은 대안적인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돈을 좀더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경향은 또 하나의 큰 요인입니다.

(3) 다수확 품종은 농민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이런 종자들은 다량의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농사비용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화학비료의 사용은 토양을 산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건조지대에서 다양한 종류의 화학비료와 농약을 다량 사용한 결과 토양이 산성화되었다(토양 산도의 축적)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 다량의 화학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농산물로 인해 신장(kidney) 관련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특히 건조지대에서는 신장 관련 질병이 일상화되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2-3명이 신장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현상은 모든 세대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건조지대에 사는 많은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5) 농사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농민들은 고비용의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농업의 저개발과 몰락을 초래하는 또 하나의 요인입니다. 농사비용의 증가에 비례하여 수입의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2) 고지대(Up country)

(1)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정기적으로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할 수밖

에 없습니다. 고지대에는 비가 많이 내립니다. 이 지역에서는 당근, 비트, 파, 콩 등을 주로 재배합니다. 농민들은 이런 작물의 성장을 촉진하고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합니다. 농약과 화학비료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면 토양 내에 축적되었다가 식수로 사용하는 넷물과 강으로 흘러갑니다. 대기 중에 증발된 화학물질은 공기와 섞이게 되고 사람이 그것을 들이마시면 결국 많은 질병을 유발하여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2) 산경사지 개간. 농민들은 산 경사지의 나무를 자르고 개간 하여 작물을 재배합니다. 이것은 토양 침식을 일으킵니다. 농민들은 화학비료와 농약에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토양을 보존하는 데 사용할 돈이 없습니다. 결국 대규모의 토양을 민둥으로(slide) 만들어서 생명과 자산을 파괴시킵니다.

생명농업: 농민들의 오늘의 형편

1) 화학비료 및 농약의 사용으로 인한 질병의 위협

스리랑카 농민들은 화학비료와 농약에 노출되어 질병의 위협(예를 들면 농약중독)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민들은 때때로 농약과 비료를 작물에 뿌린 직후에 몸이 부어오릅니다.

2) 자살하려는 시도들

비용은 많이 들었는데 소득이 격감하면 결국 빈곤으로 귀결됩니다. 농민들은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부채는 소득을 초과하고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 문제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어떤 농민들은 농산물을 팔 수 없을 때 정신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3) 낮은 수입은 결국 농사짓는 것을 꺼리게 만듭니다

스리랑카는 농업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의 농업에 대한 가치평

가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는 다른 부문(공업, 서비스부문 등)에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대대로 내려온 농민의 길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4) 농민들은 빚쟁이가 되고 있습니다

건조지대의 농민들은 농사비용을 많이 쓰는데 생산한 농산물을 팔 때가 되면 큰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들의 생산물을 유통해 줄 적절한 시장이 없기 때문에 싸게 팔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국 다음 해 농사를 지으려면 돈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5) 전통적 농업을 포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농민들은 전통적인 농사법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통적 농사기술과 방법은 다음 세대에 전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젊은 세대는 농사기술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형편입니다.

제 안

- (1) 농업에 대한 사람들의 자세를 변화시키기 위한 의식화 프로그램의 시행.
- (2) 전통적인 농사 지식을 전수하는 과정의 개설. 환경에 대한 아름다움과, 중요성, 보호(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학습 내용이 학교와 교회학교의 교재 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3) 주일설교에서 환경의 가치에 대하여 설교하기.
- (4) 교회나 교구에 속해 있는, 개간되지 않은 땅에 대한 친환경적인 모델 농장 만들기.
- (5) 타밀과 싱할리족 간에 전쟁 후 화해의 단계로서 전통적 농업기술과 지식에 대한 상호문화 교류 활동하기
- (6) 힌두 축제인 '타이폰갈', 기독교의 추수감사제와 같은 프로그램과 의

식을 통하여 종교간 관계를 증진시키는 일 행하기. 이런 행사는 땅의 풍성함을 알리는 표현들입니다.

나의 비전

- (1) 종교적, 문화적, 전통적인 지식을 서로 나누는 일을 촉진하는 일
- (2) 종교적 조화와 종족 간의 공존을 이루는 일.